

1950년대 유치환의 자작시 해설과 ‘북만주’*

- 『구름에 그린다』(1959)의 ‘신’과 예지론 -

박연희**

〈차 례〉

1. 참여시인 유치환, 자작시 해설집 발간
2. 생명과 유치환에 대한 주석
3. 1950년대에 다시 쓰는 ‘북만주’의 향수
4. 유치환의 ‘예지론’과 자기 서사의 동일성
5. 나오며

[국문초록]

1950년대 부패정권과 부정선거가 잇따르고 뚜렷한 참여문학론이 부재한 정치적, 문학적 담론지형에서 유치환은 저항시인, 참여시인으로 등극하지만, 알다시피 그는 청년문학가협회(1946) 회장을 역임한 우파 문단의 설립자이고, ‘생명파’로 명명되며 『생리』(1937) 이후 전 통서정시의 계보를 잇는 대표적인 시인이며 동시에 부왜문학의 혐의도 있었다. 그런데 더욱 주목할 부분은 『칼을 갈라』와 같이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1950년대 중반부터 그가 지속적으로 신에 대한 비평과 새로운 시형식의 단장을 발표했다는 점이다. 이 글은 1959년 신홍출판사의 <자작시 해설집> 총서 중 하나였던 『구름에 그린다』의 자기서사를 통해 유치환이 ‘신’이라는 메타포를 사용하게 된 배경과 결과를 파악하고자 했다. 『구름에 그린다』는 그의 문학사적 좌표가 변위 또는 정위되는 순간에 발간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요컨대, 『구름에 그린다』에는 북만주 체류의 자기 서사를 통해 ‘신’을 강조하고, 이것이 『생명의 서』 시편에 대한 해설에 상당히 반영된다. 유치환의 친일 논란이 『생명의 서』에 수록된 북만주 체류시에서 비롯한 것을 염두에 둘 때 자작시 해설의 비평적 장치로서 ‘신’이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A8027432).

**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전문연구원

매개하는 내용은 중요하다. 이는 단지 그의 시적 변모를 확인하는 차원이 아니라, 1950년대 이후 유치환 시세계의 원천이 '북만주'를 재전유하는 데 있었음을 가능하게 하는 데서 주목된다. 『구름에 그린다』의 서사적 특징은 시적 형상으로 드러난 특정 경험을 해당 역사의 성격과는 좀처럼 무관해보이는 시간, 공간, 이념 등과 교차시켜 새로운 관점으로 재해석하는 데 있다. 유치환과 결코 분리될 수 없었던 북만주의 역사는 『구름에 그린다』에 이르러 예지적 각성을 매개로 인간 보편의 경험과 사상으로 다시 서술된다. 저항의 최대치를 보여준 1950-60년대 시편 역시 정치적 사건과 담론에 밀착되어 있지만 그의 비판적 관점은 예지론의 존재론적 영역에 한정되어 있다. 유치환에게 '역사'는 체험되는 그 순간의 기록이 아니라 끊임없이 수정 가능한 자기서사의 원천이기에 중요하다. 이 논문은 1950년대 이후 유치환의 문학적 성격이 순수문학, 참여문학, 철학/신학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시기를 재조명함으로써 '신'의 관념이 기능하는 비평적, 서사적, 이념적 성격을 파악했다.

[주제어] 유치환, 자기서사, 구름에 그린다, 예지, 북만주, 신

1. 참여시인 유치환, 자각시 해설집 발간

유치환의 「뜨거운 노래는 땅에 묻는다」(1960.3)는 이승만 정권말기의 대표적인 저항시로 널리 알려진 시이다. “경쟁자 없는 이 대통령은 다만 천백만 유권자의 삼분지일 이상의 유효표를 얻기만 하면 된다”¹⁾는 3.15 대통령 선거 비판 기사 하단에 이 시가 실린다. 제4대 대통령선거는 민주당 후보 조병옥 사후(死後)에 이기붕과 장면의 부대통령 대결구도로 선거 양상이 바뀌면서 과열된 선거운동 분위기 속에 치러졌다. 1956년 대통령선거 때처럼 야당 부대통령이 당선될 것을 우려하며 이승만의 경계와 압박이 컸다는 점에서도²⁾ 자유당의 노골적인 선거개입은 『동아일보』의 저 기사처럼 이미 공론화된 터였다. 「뜨거운 노래는 땅에 묻는다」에도 기술사, 거짓된 거리, 구호와 찬양, 예복 등의 시어는 연일 보도되는 선거운동의 불법성을 겨냥하고 있었다.³⁾

1) 「AP기자가 본 3.15선거 전망」, 『동아일보』, 1960.3.13.

2) 서중석, 「이승만과 3.15부정선거」, 『역사비평』, 역사비평사, 2011, 18쪽.

3) 1950년대 동아일보가 지닌 정부 비판적 성격 속에서 유치환 시는 불법 선거운동을 고발하는 연재 끝에 실려 있다. 「3.15선거 카르테」, 경남편~중남편, 1960.3.6~3.13. 또한 “영혼을 팔아 예복을 입고 소리 맞춰 목청” 높인다는 유치환의 인용시는 3월 6일에 개최된 <이승만, 이기붕 출마 환영 예술인 대회>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평화극장 사장으로 연예계에서 막강한 권력을 지닌 입회수가

이 시의 주제는 물론 부패 정권에 대한 폭로이지만 그 속에 문학의 역할을 자각하는 시인 자신의 모습이 포함되어 있다. 즉, 유치환이 보기에 당시 소리 높이는 자들의 울림과 목청은 ‘진실, 참, 옳음’으로 분류되는 ‘뜨거운 노래’, 곧 ‘나의 노래’가 될 수 없는 것들이었다. 거리에 만연한 거짓 구호와 찬양 속에 혹여 진실을 빼앗길까 차라리 시인은 “고독히 뜨거운 노래를 땅에 묻는” 것으로 시를 마무리한다. 유치환의 비판적, 혁명적인 정치성향을 일컫거나 신념을 추모할 때 지속적으로 거론되어 온 이 시구절로부터⁴⁾, 70년대 민중문학론이 만개될 무렵에 김종길은 유치환을 단번에 “참여시 계열” 시인으로 규정한다. 4.19혁명을 촉발시킨 김주열 열사에 대한 헌시 『안구에 포탄을 쫓은 꽃』을 함께 열거하며 자유당 말기에 확실하게 변모한 유치환 시의 현실인식을 참여시로 범주화한 것이다.

1960년대 순수참여 논쟁을 거쳐 참여문학은 진보적 문학운동의 포괄적 이념으로 정식화되기 시작한다. 전통론, 세대론, 앙가주망론 등의 논쟁으로 분화된 뚜렷한 그룹화 경향과는 다른 양상으로 ‘참여’의 범주가 확대된다. 설령 시인의 전반적인 작품 성향이 현실정치와 무관하더라도 유치환의 『칼을 갈라』(1955.7)처럼 『저항시의 인상』⁵⁾을 주는 텍스트의 경우 참여시 계열로 읽어도 무방했다. 참여문학이 ‘순수’ 이념 정립에 대한 문제제기로부터 출발했음을 상기할 때 ‘생명과 시인’이라는 유치환의 문학사적 좌표가 50년대 중후반에 달라진 것만은 분명하다. 당시에 유치환 시는 박종화, 모운숙, 김광섭 등과 비등한 보수주의 문학의 중진 시인으로서 “과거의 스타일”로 언급되다가,⁶⁾ 『칼을 갈라』 이후 “항거의식과 의지의 추구”로서 재론되기 시작했다.⁷⁾

주도했던 이 행사는 유명배우의 공연 이벤트를 통해 선거운동을 진행한 것으로서 3.15선거 기간 관련 예술인의 정치활동을 대표한다. 부정선거에 가담한 문학인의 경우 박종화, 이은상, 김달봉 등이 있고 이에 관해 오창은, 『염상섭과 4.19혁명』, 『국어국문학』, 국어국문학회, 2015 참조.

4) 유치환 생애사를 정리할 때 이 시는 4.19혁명의 전사(前史)로서 빠짐없이 인용된다. 김용호, 『뜨거운 노래는 땅에 묻히는가』, 『동아일보』, 1967.2.15; 김광희, 『뜨거운 노래는 땅에 묻고』, 지문사, 1985; 문덕수, 『청마 유치환평전』, 시문학사 등.

5) 김수영, 『참여시의 정리』(1967), 『김수영 전집』 2, 민음사, 2003, 388쪽. 50년대 모더니스트의 뒤쳐진 현실인식을 강조하기 위해 ‘낡은 시’로서 유치환의 『칼을 갈라』가 오히려 참여시로 등극했음을 지적한다. 김수영은 전통주의 계열의 유치환이 쓴 『칼을 갈라』가 당대 저항시로 기능하게 된 배경으로 모더니즘시의 미달된 현실인식을 설명한다.

즉, 『칼을 갈라』 발표 당시에 유치환에 대한 평가는 전통적/저항적인 서로 다른 성격으로 중첩되어 나타났다.

‘생명파’는 청록파 그룹과 마찬가지로 문단사에서 급조된 용어로서 1930년대 후반 서정주, 오장환, 유치환 등의 『시인부락』(1936~37)과 『생리』(1937) 동인 시기를 독자적인 유파 흐름으로 언급할 때 사용된다. 비평적으로는 카프 해산 이후 새로운 경향을 ‘생명파적 윤리적 경향’으로 해석하며 김동리가 처음 언급한 용어였지만(『신세대의 정신』, 1940), 회고에 따르면 서정주가 처음 사용했다. 서정주는 김동리가 생명파를 휴머니스트로 호명했음을 재차 강조하고 이에 동의하며 『시인부락』, 『생리』 동인을 다른 무엇보다 “휴머니스트로서의 자각적 성립이 시작품들을 통해서 보이게 된 것은 이 무렵이 처음”⁸⁾이라 밝힌다. 1930년대 시에 나타난 강렬한 생명력 인식을 김동리의 제3세계 휴머니즘에 기대어 순수문학론의 입장으로 소급해 버린다. 순수시의 계보와 역사가 본격화될 무렵에 유치환은 1930, 40년대 시문학의 성격과 이념을 보여주는 텍스트로서 중요할 수밖에 없었다.⁹⁾ 김동리의 순수문학론은 김동석이 월북(1949) 전에 그와 벌인 논쟁에서 보다 확연하게 드러난다. 이는 좌우 문학단체에서 민족문학을 개념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순수참여 문학논쟁이다. 제3세계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민족문학을 순수 이념으로 전유하는 김동리의 논리에 김동석은 제국주의 잔재, 봉건주의 청산의 당면 과제를 내세워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조선문학가동맹 소속 신진 비평가로서 김동석은 청년문학가협회에서 순수를 표방하며 문단 내 반공의 정치적 입장을 확보하는 상황에 개입하고 있었다. 이에 김동리는 김동석의 논리를 ‘문학을 위한 문학’이 아닌 ‘생활을 위한 문학’이라는 선전문학으로 일컫고 전형적인 “유물론자의 오류”¹⁰⁾라 조롱하며 차

6) 김규동, 「전진하는 시정신(상)」, 『경향신문』, 1955.4.19.

7) 박기원, 「여물어가는 알뜰한 수확」, 『동아일보』, 1955.10.19.

8) 서정주, 「한국 현대시의 사적 개관」(『동국대 논문집』, 1965), 『서정주 문학전집』 2, 일지사, 1975, 135쪽.

9) 유치환은 포함되지 않지만 서정주가 순수시파를 한국 근대시의 출발로 잡게 된 과정에 대한 연구가 있다. 박민규, 「해방기의 해방 전 시사 인식과 담론화 양상 연구」, 『우리문학연구』, 우리문화회, 2014 참조.

단했다. 이 과정에서 유치환 특유의 생명사상은 문학진영 테제로서 급부상한 휴머니즘, 순수문학의 토대로부터 문학사에 더욱 각별하게 기입된다.

『칼을 갈라』의 예로 알 수 있듯, 유치환의 시세계는 문학사적인 간극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서정주와 김종길의 유치환론은 이를 확인하게 해준다. 유치환 시세계에 대한 단절적 인식이 해소되는 양가적인 독해의 관점이 등장한다.

항상 침범하거나 굴복하거나 변화하거나 흉악하고 비겁하거나 무상한 것들에 대한 의지의 항거 또는 명령인 것이다. (중략) 파스칼이나 몽테뉴 같은 일종의 수상가짜이 시라는 것을 한 생활의 기구로서 일기 쓰듯 했던 것이다. (중략) 그러나 유치환을 한 사람의 도인(道人)으로서 주저앉히고 싶지는 않으니, 생각하건대 『춘신』과 같은 작품은 그에게 있어서는 한 휴식이었음지는 모르나, 역시 그의 시의 중핵적인 것이라고 함이 옳을 것이다.¹¹⁾

청마의 이른바 <이념>이란, 흔히들 말하는 어떤 기성 이데올로기나 전략적인 이론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개인적인 정직 내지 열결성이 혼탁한 현실에 직면했을 때 자연발생적으로 취하는 반응의 방식 내지 방향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반응이 행동이나 글이나 시로 나타나는 경우 어떠한 이데올로기 내지 이론과 결과적으로 부합되고 비슷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거의 우연의 일치일 뿐 근본적으로 그것과는 성격을 달리 하는 반응인 것이다. 쉽게 말하여 청마의 참여 내지 저항은 전략과 이론으로 무장된 것이 아니라 자연발생적이며 개인적인 윤리적 행동이었던 것이다.¹²⁾

첫 번째 인용문에서 서정주는 『생명의 서』(1947/1955)에 실린 시들을 ‘의지의 항거’로 언급한다. 이때 ‘항거’가 표방하는 의미는 『바위』의 분석에서 짐작되는데 자연의 원초적 생명력을 추구하는 의지로 설명된다. 풍화되는 바

10) 김동리, 『생활과 문학의 핵심-김동석군의 본질에 대하여』, 『신천지』, 1948.1, 97쪽.

11) 서정주, 『유치환과 그의 시』, 앞의 책, 211, 213쪽.

12) 김종길, 『청마 유치환론』, 『창작과비평』, 1974. 여름, 319~320쪽.

위의 견고한 형상을 ‘의지’로 두둔하지만 한편으로 시적 성취가 미달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알다시피 『바위』는 “『깃발』의 연장선상”에서 상찬되고, “청마의 작품 가운데 가장 뛰어난 절창”으로 꼽히는 시이다.¹³⁾ 그런 점에서 서정주의 이 같은 평가는 『바위』 자체보다 ‘생활과 사상의 도구’로서 변모한 유치환 문학의 현실성 측면에 방점을 둔 것이라고 여겨진다. 『바위』, 『고목』, 『노한 산』 등을 ‘의지의 항거시’로 분류하고 서정성이 가장 뛰어난 『춘신(春信)』을 예외적인 시로 호평하며 이를 유치환 시세계의 본질이라고 역설한다. 두 번째 인용문은 유치환 시의 이념성에 대한 김종길의 논평이다. 김종길은 『창작과비평』에서 참여시 계열로 유치환 시를 거론하지만 참여 내지 저항의 주제가 시대 이념에 부합하더라도 결코 집단 의식의 표출이 아닌 개인의 윤리의식이며 자연발생적인 결과라고 강조한다. 유치환은 『경향신문』 폐간 철회를 촉구하는 『문화인 33명 성명』(1959.5.8.) 등 현실정치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김종길의 입장에서 이러한 실천은 유치환의 강한 자기 연결성에서 나온 반응에 불과했다. 생명 의지가 현실적 저항성으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는 서정주의 글이나 참여시의 성격을 시대 이념보다 개인의 윤리로 정리하는 김종길의 글 모두 유치환에 대한 이념적 평가를 유보시킨 가운데 드러난 결과인지 모른다.

서정주의 인용글을 다시 보면 의지, 항거, 명령으로서 유치환 시를 특화시키는 동시에 그 이후의 시적 변모를 못마땅해 한 나머지 “그의 시의 중핵적인 것”이 아니라고 밝히는 대목이 있다. 이는 해방기 시집 『생명의 서』(1947)만을 염두에 둔 평가가 아니다. 파스칼, 몽테규의 고전 사상가와 함께 열거한 유치환 시에 대한 이 같은 이해는 1950년대 유치환 특유의 ‘신’에 대한 주제로부터 나온 것이다. 1955년에 재판된 『생명의 서』의 서문만 봐도 알 수 있듯, 초판과 달리 ‘신’의 문제와 “서정의 편편은 돌이켜보아 불만과 미흡이 적지 않게 느껴”¹⁴⁾였다는 전통서정시 계열에서 벗어나려는 인상이

13) 김시태, 『청마 문학의 재조명』, 청마문화회, 『다시 읽는 유치환』, 시문학사, 2008, 34쪽; 김재홍, 『청마 모순의 시학, 극복의 시학』, 같은 책, 238쪽.

14) 유치환, 『재판 서』, 『생명의 서』, 영웅출판사, 1955. 재판은 <현대시집> 총서 중 제1권에 해당한다. 박두진외의 『오도』, 박목월의 『산유화』, 신동집의 『서정의 유형』, 박양권의 『빙하』가 포함되며 해방

적지 않다.

참여의식에 대한 뚜렷한 문학론이 부재한 상태로 50년대 정치적 담론지형에서 유치환은 저항시인, 참여시인으로 등극하지만, 알다시피 그는 청년문학가협회(1946) 회장을 역임한 우파 문단의 설립자이고, '생명파'로 명명되며 『생리』(1937) 이후 전통서정시의 계보를 잇는 대표적인 시인이며 동시에 부왜문학의 혐의도 있었다.¹⁵⁾ 그런데 더욱 주목할 부분은 「칼을 갈라」와 같이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1950년대 중반부터 그가 지속적으로 '신'에 대한 비평과 새로운 시형식의 단장을 발표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유치환 산문에 나타난 '신'은 종교성, 범신론, 허무주의, 무한과 절대의 개념, 우주론, 휴머니즘 등으로 연구되어 왔다.¹⁶⁾ 그러나 「신의 자세」, 「신의 존재와 인간의 위치」, 「신의 존재와 인간의 인식」 등 '신'을 제목으로 달아 놓은 산문 몇 편만으로 그 비평적 의미와 맥락을 제대로 해명하기 어렵다. 50년대에 이르러 유치환이 '신'이라는 메타포를 사용하게 된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1959년 신흥출판사의 <자작시 해설집> 총서 중 하나였던 『구름에 그린다』의 자

기념시처럼 국권 회복 이후 언어, 예술, 문화, 사상에 대한 자유를 기념하기 위한 발간되었다. 후술하겠지만 재판 서문에서 유치환이 자기 문학에 대한 성격 규정에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도 총서 발간의 의미와 무관하지 않다.

- 15) 서정주가 『현대조선명시선』(1950)을 편집하면서 시인부락 동인의 일부와 유치환을 가리켜 생명파라 호명했고, 그런 특권적 위상을 점유하며 연구사적으로 유치환 시세계는 사랑과 생명(초기)-사랑과 생명과 사회(중기)-생명(후기)로 구분된다. 고봉준, 「1950년대 유치환 문학에서 '신'과 '휴머니즘'의 관계」,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83,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9, 38~39쪽. 유치환의 초기시 연구는 김윤식, 「허무의지와 수사학-유치환론」, 『한국근대작가론고』, 일지사, 1974; 권영민, 「유치환과 생명의지」, 청마문학회, 앞의 책; 윤은경, 「유치환 초기 시의 생명의 지평과 윤리」, 『비평문학』, 한국비평문학회, 2014; 김진희, 『생명파 시의 모더니티』, 새미, 2003 등이 있고, 유치환의 재만문학에 관해서는 박태일, 「유치환과 이원수의 부왜문학」, 소명출판, 2015; 최현식, 「민주의 서정, 해방의 감각-유치환의 '민주시편' 선택과 배치의 문화정치학」, 『민족문화사연구』, 민족문화사연구소, 2015; 윤은경, 「유치환의 시에 나타난 디아스포라적 의식과 혼종성-만주 이주를 전후한 시편을 중심으로」, 『비평문학』, 한국비평문학회, 2014; 오양호, 『청마시조』의 사상적 배경 고찰, 『인문학연구』, 인천대 인문학연구소, 2019 등이 있다. 유치환의 부왜문학 논란에 대해서는 임종국, 최삼룡, 박태일 등의 논의를 참조할 것. 박태일, 「청마 유치환의 북방시 연구」, 『어문학』, 한국어문학회, 2007.
- 16) 신중호, 「청마문학의 종교성 연구」, 『한국언어문학』, 한국언어문학회, 2002; 고봉준, 위의 글, 김윤정, 「유치환의 문학에 나타난 '인간주의적 형이상학' 고찰」, 『한민족어문학』, 2015; 김윤정, 「유치환 시에서의 '절대'의 외연과 내포에 관한 고찰」, 『한국시학연구』, 한국시학회, 2009 등. 이중 파스칼에 대한 유치환의 논의를 다룬 연구로는 오문석, 「유치환의 바로크 여행」,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9가 있다.

기서사를 통해 파악가능하다.¹⁷⁾ 『구름에 그린다』는 앞서 설명한 대로 그의 문학사적 좌표가 변위 또는 정위되는 순간에 발간되었다는 점에서 핵심적이다. 요컨대, 『구름에 그린다』에는 북만주 체류의 자기 서사를 통해 ‘신’을 강조하고, 이것이 『생명의 서』 시편에 대한 해설에 상당히 반영된다. 유치환의 친일 논란이 『생명의 서』에 수록된 북만주 체류시에서 비롯한 것을 염두에 둘 때 자작시 해설의 비평적 장치로서 ‘신’이 매개하는 내용은 중요하다. 이는 단지 그의 시적 변모를 확인하는 차원이 아니라, 1950년대 이후 유치환 시세계의 원천이 ‘북만주’를 재전유하는 데 있었음을 가늠하게 하는 데서 주목된다. 1950년대 이후 유치환의 문학적 성격이 순수문학, 참여문학, 철학/신학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시기를 재조명함으로써 ‘신’의 관념이 가능하는 비평적, 서사적, 이념적 성격을 파악하려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2. 생명과 유치환에 대한 주석

1930년대 카프 해산 이후 새로운 문학운동이 모색되면서 1920년대 동인 문단시대보다 훨씬 많은 총 47종의 동인지가 발간되는데¹⁸⁾ 『생리(1935)』는 그 중 하나였다. 김기섭, 장응두, 염주용, 유치상 등이 참여해 출간한 시동인지 『생리』는 출판물의 급증 속에서 신인 유치환의 “비통한 시혼의 정진” 정도로 간단하게 소개되었다.¹⁹⁾ 『생리』에 수록된 유치환의 시는 연구사적으로 중요하게 언급된 바 없고 시집으로 묶이지도 않았지만, 생명파라는 유치환의 활동을 대변하며 중요한 문학사적인 위상을 지닌다. 생명파로서 『생리』를 주관한 유치환 시의 특징은 원시 생명의 회구에 있다.²⁰⁾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17) 총서 중 가장 주목받은 해설집이 유치환의 것이었으며 이에 관해 박연희, 「1950년대 후반 시인들의 문학적 자기-서사」, 『현대문학의 연구』, 한국문학연구학회, 2018.

18) 이 시기 시동인지로 『시인부락』, 『당만』, 『시건설』(1936), 『자오선』, 『시인춘추』(1937), 『맥』(1938), 『웅계』, 『시학』, 『시림』(1939) 등이 있으며, 30년대 후반에 동인지가 급증한 원인으로 카프 해산의 영향, 상업적 종합지에 대한 반발, 전형기적 동인지 현상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최호빈, 「1930년대 후반 동인문학 장의 형성과 세대론의 전개」, 『한국근대문학연구』, 한국근대문학회, 2018, 326쪽.

19) 박용철, 「정축년 회고, 출판물을 통해 본 시인들의 업적」(완), 『동아일보』, 1937.12.23.

자기 비뇨를 먹으면서까지 생존하는 “모진 생명욕”(『내 너를 내세우노니』)이 야말로 김동리가 새로운 유과를 만들면서(『신세대의 정신』) 주목한 유치환 시의 특징일 것이다. 그런데 『생리』에 실린 『심야』, 『까치』, 『창공』은 고독한 자아의 울분과 갈등이 대부분이다.

오오 어린 별들도 무서워 내려보지 못하는 함정
사람이 짓고 사는 이 공포의 성곽이여

다 끄고 남은 가등의 낮 같은 각광을 쓰고
나는 취하여 망(輾)랑처럼 울며 지내가다

-『심야』(『생리』 1, 1935.7.1.) 일부

주우리면 아침 서리 깃흔 땅에
계절 밖의 아쉬운 미끼를 줍고
저 요원한 요원한 만목(滿目)의 적요(寂寥)에
초라리 꼬구리고 사는 새여

『까치』(『생리2』, 1935.10.1.)

한 점의 구름도 없고
산머리도 시가(市街)도 면계(眼界)에 없는
볼수록 녀를 매료하는
저 갯업이 새파람 창공을!

채관의 선청을 뽑아
원통 화폭에 도말(塗抹)하야
그 피어런 판쪽을 창공이라 내걸면

20) 서정주, 앞의 글.

사람들은 다들 웃으리니

『창공』(『생리』 1, 1935.7.1.) 일부

인용시는 “어린 별도 무서워 내려보지 못하는” 어두운 공포의 도시에서 스스로 가로등의 각광을 받으며 취해 울며 다니는 나(『심야』), “초라히” 외로운 겨울날 새(『까치』), “녁을 매료하는” 푸른 하늘이어도 온통 파랗기만 한 하늘은 그림이 될 수 없다고 공허해 하는 화가(『창공』)가 전면에 등장한다. 모순과 한계를 극복하려는 의지와 힘이 표출되어야 하는데 『생리』의 시 3편에는 시적 대상이 처한 안타까운 상황만 제공될 뿐이다. 중일전쟁을 전후로 하여 시문학은 윤동주, 이상과 같이 자기성찰과 자기부정의 균열, 혼란 등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양적으로 팽창한다. 시인들은 자기 시대를 새로운 것의 출현이 가능한 과도기적 시대로 파악하기 시작했다.²¹⁾ 『생리』에 수록된 유치환의 두려움, 외로움, 슬픔의 도드라진 감정 또한 암울한 현실에 대한 주체의 조명방식으로 볼 수 있다.

『생리』는 1930년대 중반 시인들과 교호하는 중요한 문학사의 한 단층일 수 있는데 유치환의 자기 서사에서 이 시기는 언급조차 안 된다. 30년대 초반 일본 아나키스트와 정치용 작품에 영향을 받아 유치환과 함께 『소제부』(1930)를 발간했던 것을 포함해 “노상 지각없이 막걸리나 마시며 청춘을 허송”하며 보냈다는 한탄뿐이다. 『구름에 그린다』에서 그는 생명과 문학에 대한 해설이나 해방기의 청문협 활동도 전혀 다루지 않는다. 1930년대 신세대 유평을 지칭했던 『생리』 동인(문학)에 대한 회고와 설명이 전혀 없다는 것은 1950년대 후반 자신의 시문학의 성격을 서사화할 때 순수문학론의 계보로서 생명파라는 위상을 비껴가는 것인지 모른다.

해방기에 유치환이 제1회 청년문학가협회 조선시인상(1947.6)을 수상하고 『생명의 서』(1947) 비평이 급증한다. 당시 논자들은 『생명의 서』의 성격을 재만문학으로 규정하며 『청마시초』(1939)와 연속성을 강조했다. 그럴 수밖에

21) 오문석, 『1930년대 후반 시의 '새로움'에 대한 연구』, 『상허학보』, 상허학회, 1998, 51쪽

에 없는 것이 유치환 스스로 시집의 서문에서 제2부에 수록된 30여편의 시 모두 북만주 체류시라 설명한 뒤 이를 불가피한 존재론적 숙명의 산물로서 장황하게 소개하고 있었다. 재만문학 중심의 해방기 유치환론에서 특히 『수(首)』에 대한 비평 비중이 적지 않았다. 조지훈은 “삭북(朔北)의 하늘에 걸린 효수(梟首)의 머리를 보는 등 느껴부린 노래를 모은” 시집이 『생명의 서』라고 강조하고,²²⁾ 김동리 역시 『수』를 직접 인용하며 생명의 곡조, 민족의 숙명적 고통으로 해석했다.²³⁾ 유랑의 슬픔과 민족혼의 절규에 고정된 채 “민족적 각도”²⁴⁾에서 시를 소개하며 짧은 지면 가운데서도 조지훈과 김동리는 『수』의 효수 장면을 들어 시인의 북만시절의 통탄과 고통을 강조한다.

하지만 실제 『수』에서 유치환은 “너희 죽어 율(律)의 처단의 어머함을 알았느냐”라고 단호한 어조로 비적 행위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수』에서 나타난 유치환의 태도는 적어도 수난사의 고통스런 자세는 아니었다. ‘비적’이 도둑무리가 아닌 반만항일 세력일 개연성이 크지만 『수』는 해방기 논자들에게 의해 재차 인용되는 가운데 암암리에 유치환은 민족적 수난사를 대표하는 재만시인으로 인식되고, 그의 문학은 “새로운 민족시의 탑(塔)”²⁵⁾으로서 고유성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유치환의 희생과 수난이 증명될수록 『생명의 서』에 수록된 해방후 시들은 애국시, 민족시로 표상되기 용이했다. 유치환이 조선시인상을 받기 직전 “순수시인에서 애국시인으로 화(化)한 시인”이라고 가장 먼저 유치환을 손꼽아 극찬한 논평이 김동리의 글인데²⁶⁾ 여기서 ‘생명파’에서 ‘청문협’ 시인으로서의 문학사적 계보를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다. 요컨대 『생리』 동인으로부터 생명파와 문학-재만문학-민족의 희생과 의지-애국시 등의 문학사적 내러티브가 가능해졌다.

자작시의 고유성이 재맥락화될 가능성 속에 『구름에 그린다』가 위치한다. ‘자작시 해설’의 양식은 개인의 생애적 선택과 결단이 부각되더라도 이를 자

22) 조지훈, 『생명의 문학-유치환의 시에 대하여』, 『경향신문』, 1947.11.16.

23) 김동리, 『청마의 『생명의 서』』, 『문학과 인간』, 223~234쪽.

24) 조지훈, 위의 글.

25) 조지훈, 위의 글.

26) 김동리, 『시단 일년의 개관』, 앞의 책, 194쪽.

신의 정치적, 이념적 문제가 아닌 시인되기의 일부로서 독해할 관점을 제공한다. 유치환에 따르면 자작시 해설을 통해 “한 시인으로서 세상에 서게 된 나의 생각”을 보여주려 했다. 일종의 성장 서사에 해당하는 서술방향은 자작시의 선택과 비평적 관점이 어떤 분절 단위들로 재-조직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분기점으로서 그가 택한 것은 “시대적 뒷받침”이나 “사회적인 환경”²⁷⁾ 등의 역사적 경험이었다.

시간적 연쇄로서 자신의 생애가 해설되지만 여기에 자작시는 수록 시집의 발간 순서와 상관없이 뒤섞여 배치되며 시대적 이미지만으로 현재 자신의 문학에 이르는 도정을 담고 있다. 설령 역사적 경험에 단절과 차이가 있더라도 예술론의 측면에서 ‘절합’(articulation)하는 독특한 문학적 자기인식을 구성한다. 유치환에게 정치적, 이념적 문제는 여기서 파생된 문학 장의 관계를 자신의 독자적인 예술론으로 특권화할 때 해소될 수 있는 거였는지 모른다. 알튀세르의 개념처럼 이데올로기는 역사적 존재에 대한 의식이 아니라, 개인들이 자신의 존재 조건들에 대한 자신의 관계를 상상적으로 시는 의식 및 비의식의 형태, 새롭게 절합된 자기인식과 오인의 형태이다.²⁸⁾

3. 1950년대에 다시 쓰는 ‘북만주’의 향수

그러나 그렇게 지각 없고 방향 없는 생활 가운데서라도 한 시인으로 잡아 키워준 것은 부지부식 중에라도 또 하나 나의 고향의 그 맑고 고운 자연의 풍치가 아니던 가고 꿈꿈이 생각되는 것입니다. (중략) 해방 직후 시인 <지용>이 찾아 왔기에 우리 고향의 풍경을 일목에 조망할 수 있는 곳으로 이끌었더니 그의 남다른 감격성은 참으로 재탄 삼탄이었으며 언젠가 일찍 북만주에서 교분을 가졌던 현재 어떤 대학교의 총장으로 있는 R씨를 만났더니 청마의 고향에 들려보니 정말 시인이 날만한

27) 유치환, 『생장기』, 『구름에 그린다』, 신흥출판사, 1959, 12쪽(이하 이 책의 서지사항은 『구름』으로 표기함).

28) 루이 알튀세르, 서관모 옮김, 『마르크스를 위하여』, 후마니타스, 2018, 28쪽.

곳이더라고. 그러나 시인이 생장한 추억 속의 고향은 더욱 더 곱고 아름다운 것으로서 그것은 누구도 쉬이 알 수 없을 것입니다.²⁹⁾

인용문은 「귀고」에 대한 해설 중 일부이다. 『생명의 서』의 첫 장에 배치된 「귀고」는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온 시인이 “끼고 온 신간을 그림책인 양” 세월의 공백을 절감하며 고향과 유년기를 서정적으로 회고한 시이다. ‘귀고’라는 제목처럼 유치환 시에서 고향은 “낯설은 신작로”와 “신간” 등 새로운 것을 타자화하는 ‘귀(歸)’의 영역이다. 다시 말해 현재의 공간과 시간으로부터 단절된 심상을 지닌다. 그렇기에 고향의 모티프는 새로운 사유의 지향점이 생길 때 반성과 회복의 심리적 기제로 사용되기 십상이다. 가령 인용문처럼 『구름에 그린다』에는 고향에서 정지용을 만났던 기억을 삽입해 암암리에 『향수』와 「귀고」를 오버랩시킨다. 「귀고」는 『만주시인집』(1942)에 실린 시이지만 『생명의 서』에 재만문학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선행연구에서도 「귀고」는 『청마시초』(1939)의 경향과 같아 입만하기 이전의 시로 언급된다.³⁰⁾ 이처럼 「귀고」는 북만시절의 경험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고 그보다 1930년대 이후 민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이 가속화될 때 급증한 이향(異鄕)에 대한 민족주의적 정서, 저항의식, ‘고향’이라는 시적 테제와 맞물려 이해된다. 1930~40년대 시문학에서 고향은 오장환, 백석, 이용악 시에 집중해 상실의 측면에서 해석되거나, 사후적으로 발견/구성되는 이데올로기의 전형으로 논의되어 왔다.³¹⁾ 「귀고」에 대한 해설에서 인용문은 고향을 ‘지각없는 청춘’에 대한 반성과 극복의 계기로서 표상한다. 『사제부』, 『생리』 시기 청춘의 방향을 “잡아 키워준” 것이 고향이라고 강조함으로써 자신의 중요한 시적 원천으로서 고향을 강조하고 있다.

시적 원천이자 귀(歸)의 영역으로서 고향이 의미하는 바는 인용문의 회고 속에 느닷없이 등장한 북만주 지인을 통해 좀더 분명해진다. 자작시 해설은

29) 유치환, 『구름』, 20쪽.

30) 박태일, 『유치환과 이원수의 부왜문학』, 소명출판, 2015, 78쪽 각주77.

31) 고봉준, 「고향의 발견: 1930년대 후반시와 고향」, 『어문론집』, 2010.

『귀고』에 등장하는 개인의 서정적인 기억과는 무관하게 어느 순간 이 시에 국한하지 않고 북만주 유랑 모티프로서 고향을 새롭게 모색한다. 인용문처럼 북만주 체류시를 해설하기에 앞서 고향의 “곱고 아름다운 것”과 북만주의 불모적 세계를 가시화한다. 이를 통해 역사적 모순 속에 발생한 북만주행에 대한 자기서사의 맥락이 조성되기 시작하는데, 엄혹한 일제말기에서 만주로 “진정 도망”³²⁾친 거라고 자학하거나 “나의 인생을 한번 다시 재건”하려 했다고 반성하며 현재 시점에서 재만경험을 “망국 민족으로서의 치욕”³³⁾으로 환기한다.

『구름에 그린다』에서 그가 재만시기로 상정하고 다룬 시편은 10편 정도이며 그 해석 층위는 『생명의 서』의 재판 서문에서 이미 강조한 대로 ‘문명과 등진 허막한 자연’과 ‘인간생활에 대한 향수’의 자연/인간 영역에서 반복된다. 가령 『광야에 와서』, 『절명지』, 『절도』는 “광막한 그 별판”, “무작정 험악한 세월”³⁴⁾처럼 만주=자연의 원초적인 시간과 공간의 순환성을 비극적으로 형상화한 시로 해석되고, 다른 시편들은 여기서 말미암은 인간존재, 인간생활의 이념과 가치를 다룬 것으로 문제의식을 보여준다. 『수』, 『합이빈 도리공원』, 『우크라이나사원』, 『나는 믿어 좋으랴?』, 『도포』 등이 향수와 인간의 비애 등을 보여주는 시편이다. 여기에는 “비적”(『수』), “니-야여”(『도포』), “가네야마”(『나는 믿어 좋으랴』) 등 오족협화의 통치이념에 의해 형상화된 인물들이 대거 등장한다. 가령 이들 시는 도적이든 저항세력이든 만주국 율법에 따라 처형당한 비적, 청나라에 중국에 복속된 식민지인,³⁵⁾ 창씨개명한 조선인 등 만주 거주민을 전경화한다. 따라서 북만주에서 유치환의 정치적 포지션을 파악해볼 시들인데, 『대동아전쟁과 문필가의 각오』에 따르면

32) 유치환, 『서』, 앞의 책(1947).

33) 유치환, 『구름』, 35쪽.

34) 유치환, 『구름』, 34, 36쪽.

35) 최현식은 “니야”가 신장지역 출신임을 설명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족, 만주족도 아닌 ‘식민화된 존재’야말로 시인의 식민지적(무)의식을 환기한다고 역설한다. 요컨대 유치환은 시에서 소외된 타자를 찾아 자신과 동일시하며 자신의 타자성을 발견하는데, 이러한 간접적이며 우회적인 자기이해란 연민의식뿐 아니라 상실/억압된 민족의식까지 환기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최현식, 『만주의 서정, 해방의 감각-유치환의 ‘만주시편’ 선택과 배치의 문화정치학』, 『민족문화사연구』, 민족문화사연구소, 2015, 292~293쪽.

전시 국면은 “비류(比類)없이 위대한 것”이어서 유치환에게 대동아전쟁의 주체로서 “황국신민이 된 우리”³⁶⁾에 대한 부정 내지 저항의식은 없어 보인다. 이미 알려졌듯 그가 맡았던 농장관리만 하더라도 개혁과 협화의 통칭이념에 부합하는 이력이다. 『수』와 같이 원시적 자연=만주에 대한 낙담과 한탄이 배인 시편은 전도된 오리엔탈리즘의 일본 제국주의적 시선을 보여주기엔 충분하다. 그러나 그가 갱신해 나간 북만주 체류의 문학적 형상은 자연/인간의 해석 층위를 어느 순간 훌쩍 넘어 신적인 영역으로 설명된다. 『하얼빈 도리공원』의 해설이 대표적인데 먼저 해당 시부터 읽어보자.

여기는 하르빈 도리공원
 오월도 설달 같이 흐리고 슬픈 기후
 사람의 숨씨로 꾸며진 꽃밭 하나 없이
 크나 큰 느낌나무만 하늘도 어두이 들어 서서
 머리 위에 까마귀 떼 종일을 바람에 우짖고
 슬라브의 혼 같은 울암한 수음(樹陰)에는
 나태한 사람들이 검은 상념을 망토같이 입고
 혹은 뺨취에 눈고 혹은 나무에 기대어 섰도다
 하늘도 광야 같이 외로운 이 북쪽 거리를 짐승같이 고독하여 호을로 걸어도
 내 오히려 인생을 윤리치 못하고
 마음은 망향의 욕된 생각에 지치었노니
 아아 의식(衣食)하여 그대르은 어떻게 족하느뇨
 창랑히 공원의 철문을 나서면
 인차(人車)의 흘러가는 거리의 먼 음천(陰天) 넘어
 할 수 없이 나누운 광야는 황막히 나의 감정을 부르는데
 남루한 사람 있어 내게 인색한 소전을 요구하는도다

-『哈爾賓道裡公園』

36) 유치환, 「대동아전쟁과 문필가의 각오」(『만선일보』, 1942.2.6.), 박태일, 앞의 책, 80쪽 재인용.

『구름에 그린다』에서 유치환은 『하얼빈 도리공원』 전문을 인용한 후 “망향의 욕된 생각”이라는 시구절을 다소 길게 해설한다. 고독한 생활 끝에 하얼빈 거리로 산책 나와 들른 도리공원이 불모지 광야와 다른 이미지로 재현 되었다면 해석 방향이 달랐을까. 『하얼빈 도리공원』의 해설에서 유치환은 역사와 이념을 회색시키는 신의 관념론에 관한 비평적 토대를 마련한다. 시에서 나온 한적하고 낙후된 분위기와 달리 하얼빈은 대표적인 유흥가, 도심지, 관광지로 소개될 정도로 인구 밀집도가 높은 변화가였다.³⁷⁾ 그럼에도 그가 흐리고 어두운 하늘과 까마귀, 방치된 꽃밭, 검은 상념에 빠진 우울한 사람들, 출입구에 자리한 거지 등으로 재현하고 있는 하얼빈은 ‘고향적인 것’을 기준으로 타자화된 심미적 공간이다.

고향의 심상을 통해 시인은 ‘망향의 지친 나의 마음’과 ‘스스로 만족하며 사는 그대의 의식(衣食)’의 상반된 의미 모두를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재구성한다. 1932년 만주국 수립 이후 만주 이민에 관한 지배담론 중 하나였던 개척담론은 주로 일본인 농민을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조선인 이민은 배제 또는 통제 대상이었다. 하지만 1937년 중일전쟁을 위시한 대외적인 상황 변화에 따라 조선인 이민방침이 완화되고 조선 이민을 일본 개척민에 준하는 취급을 하게 된다. 만주국의 개척민 정책이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조선인 농민도 ‘준’ 일본인으로서 공식으로 개척민의 칭호를 사용하는 등 굴절된 개척론 서사구조가 증가한 시기도 이 무렵부터이다.³⁸⁾ 만주국 정착, 개척의 필연성을 부각시키는 문학적 기능에서 고향은 “애착과 거부라는 이중 태도”³⁹⁾를 전인함으로써 향수가 아닌 미래지향적인 이상이 된다.

『하얼빈 도리공원』의 “북쪽 거리를/ 짐승같이 고독하여 호을로 걸어” 정주하지 못한 망향의 혼란한 감정은 재만시의 이주 모티프에서 빈번하게 드러

37) 『만주개척동포들의 생활상』 1~6, 『동아일보』, 1940.7.28.~8.2.

38) 김기훈, 『만주국 시기 조선인 이민담론의 시론적 고찰』, 『동북아역사논총』, 동북아역사재단, 2011, 121, 133~134쪽.

39) 재만문학 중 농촌 공동체를 다룬 대개의 소설에서 고향은 아름다운 산천으로 환기되는 동시에 착취와 궁핍으로 드러난다. 곧, 향수는 고통스런 기억으로 대체되며 이로부터 벗어날 만주국 정착의 필연성이 부각되기에 이른다. 김미란, 『낙토 만주의 농촌 유토피아와 공간 재현 구조』, 『상허학보』, 상허학회, 2011, 124쪽.

나는 향수이자 개척문학에서 장애물로 간주하는 과거 지향적 감상성⁴⁰⁾으로 읽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유치환의 시는 망향의 비애로 끝나지 않고 다시 광야로 가기 위해 감정을 추스르는 수순을 밟는다. 가령 마지막 시구절은 시적 주체가 '하얼빈'을 황무지의 공허한 표상이 아닌 민족의 새로운 공간으로 재인식하는 장면이라 할 만하다. 공원 출입문을 나가다 “남루한 사람 있어 내게 인색한 소전(小錢)을 요구하는도다”에 이르면 계급적으로 이상화된 개척 조선인의 우월한 위상이 가능된다.⁴¹⁾ 유치환의 시는 향수에 대한 자족적인 슬픔이 아닌 고향의 대체 가능한 공간으로서 만주를 연상시킨다. 더욱이 이에 대한 해설에서 북만주 체류시에 내재한 고향과 향수는 조국, 민족의 집단서사를 초월해 영혼, 신의 차원으로 보편화되기에 이른다.

나는 저 무릇 문명과는 등진 허막한 북만의 자연과 거기에서 이루어지든 인간생활들에 대하여 날이 갈수록 향수 같은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중략) 오히려 그보다도 이제와선 내게서 내 겨레나 내 나라 내지 인간자체에 대한 애정이 상실되고 대신 증오를 얻었음에 더 큰 원인이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오늘 현재 내게 있어서는 지극히 사소한 관심사일 다름이니 이제야 나를 온통 나무처럼 그쪽으로 쓸어 붙여 가는 것은 내 위에 군림한 신의 자세인 저 허허비정(虛虛非情)한 시공과 나의 존재와에 관한 문제인 것이다.⁴²⁾

이 때 내 자신을 스스로가 주체 못하는 밑 없는 절망 속에서 아프게도 나를 불러 손짓하고 또한 내 스스로 그것을 치욕으로 생각하는 망향의 먼 향수는 어떤

40) 『만선일보』 수록지에서 유랑은 재만 조선인들의 고달픈 삶을 드러내는 주요 모티프이면서 추방된 재만 조선인들의 공동의 슬픔과 체념, 상실과 적막감을 극화시키는 시적 요소였다. 따라서 당시 『만선일보』에는 망향의 허무주의를 비난하면서 조선인의 만주 정착을 독려하기 위한 글들이 실리기도 했다. 이인영, 『만주와 고향』, 『한국근대문학연구』, 한국근대문학학회, 2012, 151~153쪽.

41) 후기 이주정책에서 개척담론으로 동원된 민족적 우월감은 식민지적 무의식을 형성하고 소수민족, 중국인에 대한 형상이 상대적으로 멸시의 관점에서 그려진다. 김성욱, 『한국 근대 소설에 나타난 '타자 이미지' 연구』, 한양대 박사논문, 2008, 131쪽, 김기훈, 위의 책 138~139쪽 재인용.

42) 유치환, 『재판서』, 앞의 책. 해방 이후 만주 경험의 중층성은 내서널리즘의 작동에 의해 망각되는 부역과 항일의 대척되는 경험에서 출발한다. 정종현, 『근대문학의 나타난 '만주' 표상』, 『한국문학연구』,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05, 255쪽.

현실의 나의 고향이나 조국에 대한 그것이 아니라 영혼이 돌아가 의지할 그러한 정신의 안주지가 아니었던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국의 혼령들이 귀의한 혼령의 고토마저 내게는 내것인 듯 애달게도 간절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⁴³⁾

첫 번째 인용문은 1955년에 재판된 『생명의 서』의 서문이고, 두 번째는 1959년 『구름에 그린다』에 실린 「하도리 도리공원」 해설의 일부이다. 모두 향수에 대한 재해석이다. 향수는 과거에 대한 현재적 정서로 고향에 대한 과거의 민족과 타향에 대한 현재의 불만 간의 괴리감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유치환의 해석된 향수는 “고향이나 조국”이 아닌 “정신의 안주지”에 대한 그리움이기 때문에 그 슬픔이 덜하다. 그가 처했던 경험이 “영혼”의 형이상학적인 문제로 처리될 때 왕도낙토와 오죽협화의 통치이념 역시 “이국의 혼령들이 귀의한 혼령의 고토”로 추상화된다. 제국과 식민지, 주변과 중심으로 철저히 위계화되었던 북만주에서의 기억이 신화적 기원처럼 이상화하고 영혼이라는 보편적인 의미로 재편된다. 그는 자작시 해설집 전반에서 종종 자신의 역사적 기억을 환기하곤 했지만 민족적 의미를 지닌 특별한 사건을 선택해 이를 심미적 현상으로 비약시킨다. 이는 『생명의 서』 재판 서문에서 이미 밝힌 자신의 문학관이라 볼 수 있다. 첫 번째 인용문을 보면 재판시기에 쓴 “향수 같은 것”은 “현재”에 비추어 볼 때 “사소”한 것이고, 존재론적 문제가 그보다 더 고양된 자기 문제의식으로 대체된다. 이때 그가 불쑥 꺼낸 “신의 자세”는 1947년 초판 서문에는 없던 것이다. 해석된 향수를 통해 만주기억의 역사화 과정이 휘발된 채 남겨진 자리를 ‘신’의 관념이 대신한다. 『구름에 그린다』에서 신은 자기 체험과 문학에 있어 나-민족-세계-우주로의 확장된 사고를 견인하는 중요한 비평적 개념이 된다. 서문에서 명료한 설명 없이 언급한 ‘신의 자세’는 몇 개월 뒤 「신의 자세」(『현대문학』, 1956.2)에서 부연된다.

「신의 자세」는 파스칼(Pascal, Blaise)의 실존에 대한 모색이 눈에 띄는 글

43) 유치환, 『구름』, 43쪽.

이다. “이것이 곧 신의 자세”라고 그가 일축한 내용은 ‘우주의 영원한 침묵이 나를 두렵게 한다’라는 파스칼의 단장(短章)으로 구체화된다. 우주를 통해 존재해 온 ‘나’를 상징하고, 우주/나 사이의 단절과 차단 속에서 발휘되는 공포를 신적인 경험으로 언급한다. 그런 점에서 유치환에게 ‘신’은 기독교의 관점에 국한되지 않는 개념이다. 인간의 모든 현상과 과정이 반복되고 있는 무한한 질서 자체가 신이다.⁴⁴⁾ “절대한 신의 자세와 또한 그와 인간과의 거리”⁴⁵⁾를 깨닫는 것이 존재론적 고통과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이 되는 것이다. 파스칼에 기대어 유치환은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우주라는 시공간의 물리적 차원에서 모색하며 실존적인 공포, 두려움으로 이를 명제화했다. 파스칼적인 우주론적 성찰은 자기증명, 자기극복을 위한 방법을 굳이 역사적 관점에서 찾을 필요가 없다. 이를 유치환에게 그대로 적용해 보자면, 연속적이지 않은 이력과 문학의 모순을 굳이 역사적 관점에서 해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4. 유치환의 ‘예지론’과 자기 서사의 동일성

『구름에 그린다』에는 파스칼의 ‘우주의 영원한 침묵’에 부합하는 소재목의 「차단의 시간에서」가 있는데 주로 복만주 체류시기에 대한 성찰이 대부분이다. “나는 비굴하게도”, “고독한 노력을”, “자기 합리화의 수작” “부끄럽기 한량 없는 일”⁴⁶⁾ 등 만주에 가게 된 동기와 기억으로부터 출발한 자기한계

44) 유치환, 「신의 존재와 인간의 위치」, 『구름』, 188쪽. 고봉준은 『보병과 더불어』(1951)부터 『구름에 그린다』(1959)까지 유치환 문학을 지배하는 기호가 ‘신’이었음에 주목하고 「신의 존재와 인간의 위치」에서 ‘우주 질서’와 같이 규정된 신의 개념에 대해 종교의 신보다는 범신론의 신으로 보고, 실존주의나 니체주의의 맥락을 통해 분석했다. 고봉준, 『1950년대 유치환 문학에서 ‘신’과 ‘휴머니즘’의 관계』,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9. 유치환의 신에 대한 비평은 당시에 파장이 좀 있었다. 그의 글을 영생을 부정하는 종교관으로 이해한 나머지 “영혼, 종교, 신에 대하여 합리적 연구를 하시기를 바란다”며 비판하는 글도 있었다. 김창수, 「인간의 영성과 종교 - 유치환씨의 「신의 존재와 인간의 위치」를 읽고」, 『동아일보』, 1955.12.3. 하지만 파스칼에 대한 유치환의 반복적인 인용과 비유는 유치환의 ‘신’이라는 메타포를 해명할 중요한 부분이다.

45) 유치환, 「신의 자세」, 『구름』, 173쪽.

46) 유치환, 『구름』, 22~23쪽.

와 한탄을 가득 채우며 파스칼의 인간학에 근접한다. 더욱이 이 글은 파스칼의 저명한 명제인 <생각하는 갈대>의 ‘갈대’ 메타포처럼 “낙엽”⁴⁷⁾을 통해 인간의 존재를 표방하고 있다. 우주라는 무한의 공간이 명제화되는 순간에 인간은 미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인간의 존재론적 불안과 고통에 대한 파스칼적 인간 존재의 표상은 다른 글에도 “만일 우리가 일점(一點)을 골라잡고 거기에 매달리려면 그것은 흔들거리고 우리를 떼어놓고 영영 어디로 사라”지는 “끔찍한 공간의 무한대” 등으로 지속된다.⁴⁸⁾

파스칼의 경구에서 갈대보다 중요한 것은 ‘생각하는 인간’에 있다. 이를 통해 인간의 가치를 논할 수 있는 차원은 ‘사유’와 관계된 것이어서 시간, 공간과 같은 물리적 차원을 능가한다.⁴⁹⁾ 이에 우주의 침묵에 들어선 공포를 극복하는 방안이 비로소 마련된다. 파스칼의 ‘생각하는 인간’처럼 유치환에게도 ‘예지의 인간’ 형상이 만들어진다. 유치환에 따르면 “신은 오직 그대로서 영원히 침묵하여 지켜있을 따름”이고 “인간만이 고유한 예지”를 통해 선/악 모든 이분법적 존재에 편재해 있는 신의 존재를 자각할 수 있다. 곧 예지로서 인간은 마침내 자신의 운명을 체득하게 된다.⁵⁰⁾ 유치환의 예지론은 『보병과 더불어』 해설에 적극적으로 삽입된다. 공교롭게도 파스칼의 명제를 떠올리게 하는 제목의 『갈대』 해설을 통해 그는 인간의 예지가 가능한 조건을 탐색한다.

종군시에 해당하는 『갈대』는 낙동강전투 직전의 “숨막힌 순간”⁵¹⁾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산항구에 갈대처럼 서성이며 절망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유치환은 『갈대』 해설에서 예지의 조건으로 “에워 있는 자연이나 그들 자신 간의 선의(善意)”를 강조한다. 우주/나 사이가 악의(惡意) 앞에 놓여 있다면 더 큰 용기와 예지가 필요하다는 추가설명을 포함해 그는 “고귀한 것”이면서도 “더러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⁵²⁾라고, 한껏 격양된 목소리

47) 유치환, 『신의 자세』, 『구름』, 173쪽.

48) 이해남, 『<파스칼>의 인간학』, 『경향신문』, 1954.5.30.

49) 김화영, 『『광세』의 번역비평과 번역인문학』, 『프랑스문화연구』, 한국프랑스문화학회, 2018, 40쪽.

50) 유치환, 『신의 자세』, 『구름』, 170, 173쪽.

51) 유치환, 『구름』, 71쪽.

로 인간의 모순적 포즈를 설명한다. 이때 다시금 북만주 광야의 원시성을 떠올리며 한국전쟁의 비인간적 상황을 예지가 불가능한 예외상태로 설명한다. 예지론에 있어 군국주의, 공산주의와 같은 악의적인 조건에서는 그 어떤 결단과 행동조차 개인의 몫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소개」, 「기의 의미」 등의 해설에서 종군시의 성격 역시 “전 존재에 대한 범적대자”⁵³⁾로 강조할 뿐 냉전 이념과 경험은 크게 다루지 않는다. 이질적이고 비연속적인 경험에 대한 그의 종합적 또는 초월적인 인식은 자신의 모든 문학을 정치 영역으로부터 윤리 영역으로 옮겨 해석하도록 한다. 대립과 갈등의 역사적 경험이 내면세계로 이행되는 데에 파스칼의 인간학이 적지 않게 참조되었다. 파스칼에 의하면 모순과 대립의 결합은 육체, 정신, 사랑이라는 생의 세 질서가 비약적으로 수행되면서 가능하고 마지막 사랑의 단계에 이르러 선형적인 것들을 심정으로 느끼는 원리를 깨달아 위안을 받으며 갈등을 극복한다. 생의 궁극적인 진리가 생 이외의 다른 차원에 있다는 추론을 비약시켜 신에 이른다.⁵⁴⁾ 유치환에게 “영원한 시공(時空)은 그(신-인용자)의 표상”⁵⁵⁾인바, 파스칼적인 신의 관념은 자작시 해설뿐 아니라 시에도 반영된다.

파스칼적인 사유는 유치환의 독자적인 면모는 아니다. 파스칼의 『팡세』가 처음 번역된 것은 1959년이지만, 해방 직후 『경향신문』에 유독 파스칼 단장의 소개가 늘고 파스칼의 인간학이 전후 실존주의의 비평적 원천으로 중요하게 인용되기도 했다.⁵⁶⁾ 『경향일보』에 파스칼 사상이 급증한 시기는 김광주

52) 유치환, 『구름』, 73쪽.

53) 유치환, 『구름』, 78쪽.

54) 박인성, 「인간의 인식에서 신으로의 이행 : 파스칼의 『팡세』를 중심으로」, 『범한철학』, 범한철학회, 2008, 149-150쪽; 이환, 「세 질서-몽테뉴와 파스칼의 경우」, 『프랑스고전문학연구』, 프랑스고전문학회, 2006, 7-8쪽.

55) 유치환, 『구름』, 143쪽

56) 파스칼의 『팡세』는 1959년 신상초에 의해 국내에 처음 번역, 소개된 이래 심재인(1962), 이환(1965), 하동훈(1967)에 의해 전집류에 속한 형태로 번역되기 시작해 현재까지 600여 종 이상 번역본이 존재한다. 김화영, 「『팡세』의 번역비평과 번역인문학」, 앞의 책, 29쪽. 그런데 1949년부터 50년대에 『경향신문』에 「일일어록」, 「一事一名」 등의 연재지면을 통해 파스칼의 단장이 실리거나, 「파스칼의 인간학」이 이해남에 의해 심도 있게 다루어지기도 했다. 이해남, 「파스칼의 인간학」, 『경향신문』, 1954.5.30. 1950년대 사르트르 붐이 한창이었을 때 『경향신문』 문화부장을 역임한 최일수 등이 그 연원으로서 파스칼의 ‘신 없는 인간’의 존재론적 철학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최일수, 「실존문학의 총화적 비판」, 『경향신문』, 1955.4.14.

가 문화부장(1947~1954)으로 재직했을 때였다. 김광주 문학에서 파스칼의 신학과 연결할 지점은 없지만 그가 『경향신문』의 교양지면을 강화하고자⁵⁷⁾ 세계 지성(인)을 소개하는 가운데 파스칼의 단장이 꾸준히 실렸던 것으로 파악된다. 유치환의 시가 단장 형식으로 달라지기 시작한 무렵은 궁교롭게도 이 시기와 맞물린다.

보이지 않는 곳에 깊이 뿌리 박고 있기에 항시 정정할 수 있는 나무. - 「나무」

어디로 향을 해도 거기 또 하나 나의 자태여. - 「구름」

그 완한 고독! 그그로의 무한 사념에 오락가락, 창연한 고성 같은 너, 배여. - 「배」

『예루살렘의 닭』(1953)에는 인용시처럼 시적 대상에 대한 순간적인 통찰과 압축적인 표현의 단장이 상당하다. 유치환의 단장은 곧은 나무를 보면서 그 힘(중심)의 원천으로 비가시적인 뿌리를 떠올리고(「나무」), 무심코 올려본 구름에서 자아를 확인하며(「구름」), 망망대해에 떠 있는 배를 보고 무한 사념 한 가운데 드는 고독을 연상한다(「배」). 힘, 자아, 고독이 산문의 중요한 개념 중 하나라는 점에서 단장의 새로움은 형식보다 주제 및 사상의 측면에서 주목해야 하다. 요컨대 유치환의 시와 산문 모두 신의 관념론에 빚져 있다. 더욱이 『제9시집』(1957)에서는 본격적으로 「단장」 95편이 수록되는데 그에 따르면 단장은 그때그때 얻는 사고와 직관의 산물이다.⁵⁸⁾ 즉, 우주적 존재로서 신에 대한 자각은 단장과 같이 순간적인 직관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이 필요한지 모른다.

단장 형식은 16~17세기에 유행해 파스칼의 『팡세』처럼 그때그때 생각나

57) 최미진, 「한국전쟁기 『경향신문』의 문화면과 김광주의 글쓰기」,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2.

58) 유치환은 “여기에 함께 수록한 단장이라는 것들도 기실은 나의 생활에서 그때 그때 얻는 기이 평범한 사고와 직관의 편편들을 주워 나로서서는 서정적 철학을 노린 아포-리즘”이라고 설명한다. 유치환, 『후기-제9시집』, 남송우 엮음, 『청마 유치환 전집』 2, 국학자료원, 2006, 337쪽.

는 기억과 연관된 단상을 체계 없이 쓰는 것이다. 따라서 파편으로 존재하는 닫힌 형식이면서 동시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열린 의미를 지닌다.⁵⁹⁾ 유치환의 경우 우주, 무한, 유/무, 선/악, 신, 만유, 인간, 목숨/죽음 등의 주제가 「단장」에서 다루어졌다. 그동안 산문에서 다룬 신과 예지의 관념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단장」에서 그는 “신의 인”에서 “갈 곳조차 모르”(「단장2」)고 방황하지만 “우주의 무한대”를 긍정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인간의 인식”(단장45)뿐이며, 이처럼 “갈대와 바람”을 통해 “나 있음을 비로소 깨”(「단장 22」)닫고 이어 “신은 정신의 궁극”(「단장39」)이라고 천명한다. ‘우주의 영원한 침묵과 두려움’의 파스칼 명제를 참조해 그가 내린 결론은 인간생활에서 신의 문제성을 발견하는 예지의 중요성이다. 초월적인 지각 능력인 예지는 유치환에 의하면 상상하거나 추리하고 반성하며 기도하는 등의 매우 포괄적인 정신활동이다.⁶⁰⁾ 예지로서의 시쓰기에 해당하는 아포리즘은 산문에서 신의 관념이 두드러진 시기에 증가한다. 『제9시집』의 「단장」은 시집 발간 직전에 발표된 「신의 영역과 인간의 부분-나는 고독하지 않다」(『동아일보』, 1956.7.17.~18, 이하 「신의 영역」)의 내용과 상당히 긴밀한데, 여기서 ‘신’을 계기로 확장된 그의 문학적 성격, 범주를 파악해볼 수 있다.

일찍이 서구의 한 뛰어난 지성이 현대의 입구에 서서 「신은 죽었다!」고 절규 선언하였다. (중략) 인간의 예지가 점점 자라나, 그들의 사유하고 행위하는 바가 종래에서 현저히 지나치게 이르자, 그 편협한 신은 어쩌면 불복종으로 달려갈 인간의 이 위험한 총명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었으며 인간 또한 그의 가혹한 감시와 질곡에서 못내 견디지 못하겠으므로 마침내 인간은 그의 주인을 시역하고 뛰쳐나올 수밖에 도리없었던 것이다. (중략) 그러나 보다 두려운 사실은, 물질문명의 그 방대성 앞에 아무리 인간의 존재와 주장이 한때 무력하고 비약(卑弱)하다 할지라고, 그것은 결코 인간개(個)의 존귀성이 박탈당한 것이 아님을 인간 자신이 까맣게

59) 이새륜, 「유치환의 아포리즘 연구」, 앞의 책, 229쪽.

60) 유치환, 「신의 존재와 인간의 위치」, 『구름』, 173쪽; 오문석, 「유치환의 바로크 여행」, 앞의 책, 15쪽.

물각하고 스스로 비굴에 사로잡힌 그것이다. (중략) 인간의 둘레 앞에 상상도 미칠 수 없는 무량대한 신의 영역-저 휘황찬란한 밤하늘의 경이와 한톨 작은 씨앗이 간직한 무궁한 오묘가 펼쳐 있는 한, 그리고 인간의 생명이 저 까마득한 어디에서 유래하는지를 알 수 없는 어떤 절대적 힘에 속하여 있는 한, 인간은 오히려 아직은 고독도 불안도 할 리 없다.⁶¹⁾

유치환의 예지론은 니체(F.W.Nietzsche)의 ‘신의 죽음’을 통해 현실비판적인 시각을 확보한다. 서구의 전통적인 형이상학 세계를 비판하고 있는 니체의 선언을 유치환은 “인간의 예지”와 “편협한 신”의 대결로 재해석했다. 니체에게 신의 죽음과 부재는 인간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선결과제였으며 유치환에게 신과의 분리는 예지의 회복을 위한 것이었다. 인용문에서 예지는 신의 경우에 “위험한 총명”으로 금지되지만 인간에게는 “인간개의 존귀성”으로 고양되어야 할 가치이다. 그는 예지를 신/인간의 모순관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개념으로 부각시킨다. 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유치환은 신/인간의 상반된 위치, 영역을 여러 글에서 반복해 구현하면서 ‘신의 죽음’을 선언한 니체적인 테제를 인용했다. 이를 통해 신의 상실 이후 허무주의에 압도당한 인간세계를 조명하고 물질/정신의 이분법적 사유를 마련한다.

가령 「신의 영역」의 첫 문장은 현대의 고독과 불안감의 원인을 추궁하는 데서 시작하는데, 이것이 전후 한국사회에서 휴머니즘을 경험하는 맥락과 무관하지 않음은 짚어볼 만하다. 전후 휴머니즘 담론을 주도했던 『사상계』의 경우 안병욱의 현실인식은 위기의식으로 특징되며 이는 단지 전쟁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직시한다.⁶²⁾ 유치환의 경우 신학적인 견지에서 물질문명을 비판하는 가운데 인간성의 문제를 다루는 차이가 있으나 현대사회에 대한 비판적 지식담론으로서 급부상하는 휴머니즘 담론과 관계한다고 전제할 수 있다. 유치환이 표방하는 위기의식 곧 “보다 두려

61) 유치환, 「신의 영역과 인간의 부분-나는 고독하지 않다」, 『구름』, 194~196쪽.

62) 황병주, 「냉전체제하 휴머니즘의 유입과 확산」, 『동북아역사논총』, 동북아역사재단, 2016, 388~389쪽. 50년대 중반 급증한 파스칼에 대한 논의가 신휴머니즘 비평과 복잡하게 뒤얽혀져 있음도 상기할 부분이다. 이해남, 앞의 글.

운 사실"이란, 물질주의를 과신한 나머지 인간이 "무력하고 비약"하다고 오관하고 자기자신을 "몰각"하게 되는 인간성의 상실을 일컫는다. "물질문명의 압도와 과신"을 매개로 '신'을 경계, 부정하고 있는 이 글은 「칼을 갈라!」(1955.7) 이듬해에 발표되었다.

「칼을 갈라!」에는 칼을 갈라고 외치는 "사나이"와 칼을 갈아야 할 "너희", 칼에 찔려야 할 "자(者)"가 등장한다. 이 시의 절정은 '너희/자'의 대결을 상상하며 사나이의 머릿속에서 강렬해지는 디오니소스적인 살육의 장면에 있는데, 이는 '고열(苦熱)과 탐욕에 가난해진 냥마의 거리'에서 비롯한다. 현실 세계에 던져진 '칼'은 불의에 저항하는 힘의 상징으로 익히 알려진 시어이지만,⁶³⁾ 「신의 영역」과 겹쳐 읽으면 '인간의 예지'로 재독된다. 현대의 위기를 대면하는 유치환의 예지는 「칼을 갈라!」에서 보면 물질주의라는 "가위눌린 허망"에 "녹슬"어진 칼이고,⁶⁴⁾ 「신의 영역」에서 보면 "물질의 세력 앞에 거세된" "인간의 가치"⁶⁵⁾로 일맥상통하다.

칼을 갈라! 외쳤던 사나이, 바로 시인은 "인간 자신의 손으로써 그 불행을 자신 위에 초래할는지 모르는 최후의 위기"⁶⁶⁾가 도래하자 예지의 회복을 꾀한다. 얼핏 봐도 시에서 "기갈(飢渴) 들여 미치게 한 자", "가위눌려 뒤집이게 한 자"의 형상은 「신의 영역」에서의 '(편협한) 신'과 다르지 않다. 이는 시에서 신을 부정할 타당한 문학적 형상과 비평적 근거를 마련한 후 순차적으로 현대의 소외와 고독을 극복할 사유체계를 강화했다고 볼 수 있다. 「신의 영역」은 신을 대체할 절대적 가치를 발견하지 못해 고독과 불안에 휩싸인 현대사회의 특징 속에서 '신의 영역'과 '그 절대의 힘에 속하는 인간의 부분'으로 인간존재의 초월적 위치를 특정한다. '신'의 구체성에서는 벗어났지만 인간의 존재방식을 '힘'이라는 주체 의지로 나타냄으로써 예지론에 신-인간의 상관관계를 반영한다. 니체철학에서 힘은 세계 내지 세계의 전체성을 의미하며 동시에 살아 있는 동적인 것을 뜻한다.⁶⁷⁾ 신과 인간은 이분화된 채

63) 이혜선, 「유치환 시의 현실비판과 풍자의식」, 청마문학회, 앞의 책, 268쪽.

64) 유치환, 「칼을 갈라!」, 『동아일보』, 1955.7.28.

65) 유치환, 「신의 영역과 인간의 부분-나는 고독하지 않다」, 『구름』, 198쪽.

66) 유치환, 위의 글, 『구름』, 196쪽.

사고되거나 전체와 부분으로 도식화된 관계가 아니라 힘의 의지를 통해 유기적으로 상상되고 있다.

사실 오늘날 인간의 문제에 국한한 이상 신이 인간에게 미치는 능력이란 인간을 있게 한 그것과 마침내 목숨을 거두어 간다는 것 외에 무엇이 있는가? 진실로 다채하고 착종하고 심각한 인간의 회노애락의 양상과 문제는 오직 인간 자신의 책임 속에서 빚어지는 것이 동시에 어느 누구의 재량에서가 아니라 인간 자신의 손으로 서만 해결될 것이니 이 일은 끝내 인간의 고독한 영광이며 죄스러운 희망이 아닐 수 없다.(밑줄 : 인용자)⁶⁸⁾

그는 4.19혁명을 전후하여 문학사적으로 저항적인 위상을 보여주는데 이는 역설적으로 신의 관념론에서 촉발된다. 유치환의 『뜨거운 노래는 땅에 묻는다』(1960.3)를 다시 보자. 이 시는 “고독은 욕되지 않다 / 견디는 이의 값진 영광”이라는 시구절로 시작해 “진실은/ 고독히 뜨거운 노래를 땅에 묻는다”로 끝난다. 이 시는 경주고등학교 교장을 사직(1959)할 정도로 자유당에 거세게 항의했던 면모와 관련해 독해되어 왔는데⁶⁹⁾ 그것만으로는 이 시에 두드러진 ‘고독’이 명료하게 해석되지 않는다. ‘신’의 메타포를 통해 그는 『생명의 서』(1955)의 북만주 체류시를 해설하며, 자유당 말기에는 니체철학에 착안하여 힘의 의지로서 인간의 고독과 불안을 긍정하기에 이른다. 파스칼적인 고독과 절망으로부터 더 이상 “고독하지 않다”라는 반어적 기제를 피력하는데 이는 인간성의 회복, 예지의 부활을 암시한다. 정치적 목소리가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 유치환은 『뜨거운 노래는 땅에 묻는다』를 통해 인간이

67) 강영계,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의 실존적 의미』, 『통일인문학』, 건국대 인문학연구원, 1994, 174쪽.

68) 유치환, 『인간의 우울과 희망과』, 『구름』, 165쪽.

69) 유치환의 정권 비판의 글, 활동에 대해서 문덕수, 『청마 유치환 평전』, 시문학사, 2004, 243~244쪽. 지금껏 『뜨거운 노래는 땅에 묻는다』는 이러한 유치환 이력 속에서 해석되었다. 이혜선, 앞의 글, 270쪽. 본문에서 논증하지 못하겠지만 유치환의 자유당 비판은 아나키즘 활동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유치환과 아나키즘의 관계는 1930년대의 활동보다 오히려 해방 후에 밀접한 영향을 받은 것 같다. 그런 점에서 하기락의 아나키즘 단체 및 정당 성향, 철학의 연구 방향 등에 대한 유치환과의 관련성은 실질적인 조사가 긴요해 보인다.

지닌 대결의지로서 “고독”의 시적 형상을 보여줬다.

흥미롭게도 “고독은 욕되지 않는다/ 견디는 이의 값진 영광”의 시구절은 인용문 중 “인간의 고독한 영광이며 죄스러운 희망”이라는 구절의 동어반복이라 할 만하다. 위에 인용한 『인간과 우울과 희망과』(『동아일보』, 1957.6.11.)는 국내 정치현실에 심각한 위기의식에 따라 인간의 자기성찰과 책임문제 등을 고독의 위상으로 설명한 글이다. 신/인간에 대한 독특한 산문은 대부분 『구름에 그린다』에 수록되어 암암리에 자작시 해설의 논거처럼 보여 왔는데 반대로 시 창작의 중요한 내용이기도 했다. 현실지향적인 시편에도 신에 대한 관념론과 인간에 대한 예시론이 중요한 사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거듭 강조하지만 재만문학에 대한 자기서사를 기술하는 과정에 ‘신’의 관념이 때면 중요하게 나타난다. 신의 관념에 골몰하는 순간, 북만주와 자유당 정권에서의 이질적인 경험이 모두 억압과 폭력의 자기서사로 수렴된다.

5. 나오며

지금까지 유치환의 『구름에 그린다』(1959)에서 각별하게 인용, 해설되는 시편을 중점으로 신의 관념론을 통해 문학적 자기서사가 새롭게 구성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유치환은 1950년대부터 현실지향적인 시, 신에 대한 산문, 파스칼적인 단장 등을 집중적으로 발표하는 등 해방기에 만들어진 생명과-청문협 계열의 문학사적 계보에서 비껴서는 행보를 보인다. 이처럼 유치환 문학의 단절된 성격이 특정한 경험, 인식과 연동하는 것은 아닌지 숙고해보기 위해 생애사적인 관점에서 서술된 자작시 해설집을 고찰했다. 『구름에 그린다』는 크게 보아 자작시를 해설하는 『나의 시 나의 인생』⁷⁰⁾과 산문 10편으

70) 『구름에 인용 및 해설된 자작시는 아래와 같다.

지면	해설 자작시
생장기	출생기, 석류꽃 그늘에 와서, 귀고, 비방의 시
차단의 시간에서	비방의 시, 청마시초 서문, 송가, 접경에서, 원수

로 구성되어 있다. 후반부의 산문은 『칼을 갈라』(1955) 직후 신문과 잡지에 발표한 글들이며 이후 『나는 고독하지 않다』(1963)로 출간된다. 『구름에 그린다』는 북만주 시절에 대한 회고가 상세하고, 신에 대한 산문이 한꺼번에 편집된 첫 지면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유치환의 입만 동기가 지사적인 선택으로 읽히고 그의 문학 전반이 『칼을 갈라』를 기준으로 재평가되는 해석적 관행은 무엇보다 ‘자작시 해설’ 양식을 통해 가능해진 것이라 판단된다. 가령 유치환 문학에서 『칼을 갈라』는 “예언자적 고발과 저항”과 “이념 쪽으로”⁷¹⁾ 변모하는 하나의 분기점으로 부각되어 왔다. 이는 『구름에 그린다』에서 ‘칼을 갈라 외치는 사나이’를 “선지자”로 표현하며 “정 의가 뒤섞여서 요량할 수 없는 난장판”⁷²⁾이 시적 동기였다는 유치환의 해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당시 주된 관심사였던 신과 인간에 대한 사유가 해설의 근거에 놓여 있다.

『칼을 갈라』 직후에 유치환은 『신의 자세』(『현대문학』, 1956.2), 『신의 영역과 인간의 부분-나는 고독하지 않다』(『동아일보』, 1956.7.17.~18), 『제9 시집』(1957)의 『단장』 등에서 ‘고독’의 관념을 반복한다. 이는 현실지향적인 시에도 예외는 아니다. 칼을 가는 사나이의 고독한 외침(『칼을 갈라』), 진실을 땅에 고독하게 묻는 행위(『뜨거운 노래는 땅에 묻는다』)가 인간의 영광과 희망으로 고양된다. 사회의 위기의식이 팽배해진 이들 시에서 시적 주체는 인간의 예지를 통해 “칼”의 힘을 발견하고 “진실”을 분간할 수 있게 된다. 유치환이 신의 관념에 경도된 것은 ‘신의 상실’ 이후 우주론적 가치들의 붕괴

광야의 생리	광야에 와서, 절명지, 절도(絶島), 애춘(哀春), 수(首), 함이빈도리공원, 우크라이나사원, 육년후, 나는 믿어 좋으랴?, 도포
행방 잃은 감각	식목제, 찬가, 어리석어, 진실, 눈주리를 찢고 보리라, 조국이며 당신은 진정 고아일다, 죄업, 일식
배수의 시간에서	갈대, 유맹(流氓), 소박, 들꽃과 같이, 소계, 기의 의미, 금강, 삶과 죽음, 영아에게, 전선에서
애증의 나무	작별, 소년의 날, 동백꽃, 그리움, 그리움, 해바라기 밭으로 가려오, 치자꽃, 그대 설은 호산나, 바위, 오동꽃, 산처럼, 행복
허무의 방향	드디어 알라리, 박쥐, 생명의 서 1장, 히말라야 이르기를, 포기, 감옥묘지, 칼을 갈라, 낮 석점, 내가 보힌다, A와 A, 대공사격연습
구원예의 모색	단장32, 단장30, 非力, 풍경에서, 단장70, 쓰-탄기-헨왕의 너임, 단장2, 대지의 노래, 길, 단장 78, 단장71, 단장3
나의 문학	심산(深山), 저녁놀, 선한 나무, 작약들 이울 무렵, 사면불, 단장12, 사랑

71) 박철희, 『의지와 애련의 변증』, 청마문화회, 앞의 책, 167쪽.

72) 유치환, 『구름』, 128쪽.

로서 공포, 허무, 고독 등의 심리상태를 발견하고, 이를 자신의 문학 또는 해석에 반영하면서부터였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생명의 서』 재판의 서문이다. 여기서 그는 해방기와 달라진 1950년대의 현재적 관점을 『생명의 서』에 추가한다. 초판 서문의 경우 북만주 시편에 대한 장황한 소개가 대부분이었지만, 재판서문을 보면 그것이 현재 자신에게 있어서는 사소한 관심사에 불과하다는 투로 언급할 뿐이다. 해방기와 달라진 입장에도 불구하고 재판 서문은 “허막한 북만의 자연”과 “신의 자세인 저 허허비정한 시공”을 중첩시켜 북만주 체류기를 현재적 관점에서 재맥락화한다. 북만주 문학과 신의 관념을 동시에 언급하는 가운데 그 공통분모로서 북만주에서 느낀 향수와 파스칼과 니체적인 존재론을 고독의 문제로 치환한다. 광활한 북만주의 자연 표상과 무한한 시공간의 신 표상을 암암리에 동일한 논리의 연속으로 삼는 가운데 그는 인간의 예지론을 특화시킨다. 무한성에 대한 인간의 공포와 이를 극복하는 예지의 발견은 인간의 고독을 소외, 고립의 부정적 의미에서 대결, 투쟁의 긍정적 층위로 전이시키는 논리적 배경이 된다. 예지론을 통해 재해석되는 자작시는 하나의 문학적 경험에 해당하는 시대적, 정치적, 이념적 특성을 회색시켜 자기서사의 동일성을 보여주었다.

개인의 기억과 달리 자작시에 의존한 문학적 기억은 자연발생적일 수 없다. 재구성된 기억을 확인하는 방법은 개인적 기억에서 문학적 기억으로 이해되는 과정에 어떤 정치적, 문화적 조건이 있었는지를 추적하는 것이다.⁷³⁾ 자작시에 부여된 새로운 해석 덕분에 두 시의 역사적 격차는 좁혀지고, 더 중요하게는 유치환 식민지기부터 1950년대 사이의 해소 불가능한 ‘북만주’ 표상 역시 새로운 차원으로 극복되기에 이른다. 가령 그는 해방 이후 자작시 해설에 「수」를 다시 불러들인다. 유치환에 의하면 역사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시인되기’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구름에 그린다』이다. 그런 점에서 해방기 문학의 회고와 해설에서 그가 깊이 관여한 문학단체의 설립이 아

73) 박연희, 앞의 글, 321쪽.

닌 김구의 암살 사건을 다룬 지점은 이채롭다. 더욱이 그는 김구의 암살 소식에 『수』의 결정적인 부분인 북만주에서 경험한 비적의 효수 장면을 떠올렸다. 한국사회에서 김구의 공적 복권이 4.19혁명 이후에 비로소 가능했다는 점에서⁷⁴⁾ 그의 김구에 대한 추모 지면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마련된 편이다.⁷⁵⁾ 그런데 유치환은 여기서 김구 혹은 그의 죽음 자체에 대한 논평보다 자신의 불안감과 두려움에 보다 집중하고 있었다. “북만주의 네거리에 내걸린 사람의 모가지를 바라보던 때 이상으로 전후좌우로 나를 노리는 살기”⁷⁶⁾를 느꼈다는 해방기 유치환의 공포는 무엇일까. 얼핏 보아 해방기 정치적 혼란을 시사하는 것처럼 보이나 한편으로는 해방기가 아닌 북만주의 상황을 강조한 것일 수 있다. 『수』에서는 율법을 들어 비적 행위를 꾸짖지만 그 해결에서는 “원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막다른 결론”의 절망, “무력”하고 “고립”된 역사적 수난사로 당시 경험을 가공한다.⁷⁷⁾

이처럼 『구름에 그린다』의 서사적 특징은 시적 형상으로 드러난 특정 경험을 해당 역사의 성격과는 좀처럼 무관해보이는 시간, 공간, 이념 등과 교차시켜 새로운 관점으로 재해석하는 데 있다. 유치환과 결코 분리될 수 없었던 북만주의 역사는 『구름에 그린다』에 이르러 예지적 각성을 매개로 인간 보편의 경험과 사상으로 다시 서술된다. 저항의 최대치를 보여준 1950~60년대 시편 역시 정치적 사건과 담론에 밀착되어 있지만 그의 비판적 관점은 예지론의 존재론적 영역에 한정되어 있다. 유치환에게 ‘역사’는 체험되는 그 순간의 기록이 아니라 끊임없이 수정 가능한 자기 서사의 원천이다.

74) 1960년대 박정희 정권에 의해 “남북협상론의 상징이 아닌 오로지 임정의 주석”인 보수화된 김구로 전유되는 과정은 공임순, 『1949년 아래 잊혀진 ‘김구’』, 『3.1과 반탁』, 엘피, 2020 참조할 것.

75) 『구름에 그린다』에서 ‘김구’는 해방, 애국, 민족, 반공, 그리고 “공산도배와 마찬가지로”인 “세도가”를 거세게 비판하는 상징적 흐름에서 언급된다. 해방기의 정치적 기독교인란 이승만 세력을 일컫는 것일 텐데 이승만 정권에서 금기시된 ‘김구 암살’을 꺼낸 것은 정권에 비판적이었던 그의 정치적 포지션을 보여준다.

76) 유치환, 『구름』, 64쪽.

77) 유치환, 『구름』, 40~41쪽.

■ 참고문헌

기본자료

『경향신문』, 『동아일보』, 『사상계』, 『창작과비평』.

2. 논문

- 강영계, 『짜리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는 실존적 의미』, 『통일인문학』, 건국대 인문학연구원, 1994.
- 고봉준, 『1950년대 유치환 문학에서 '신'과 '휴머니즘'의 관계』,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9.
- 공임순, 『1949년 아래 잊혀진 '김구』, 『3.1과 반탁』, 열피, 2020.
- 김기훈, 『만주국 시기 조선인 이민담론의 시론적 고찰』, 『동북아역사논총』, 동북아역사재단, 2011.
- 김윤정, 『유치환 시에서의 '절대'의 외연과 내포에 관한 고찰』, 『한국시학연구』, 한국시학회, 2009.
- _____, 『유치환의 문학에 나타난 '인간주의적 형이상학' 고찰』, 『한민족어문학』, 2015.
- 김화영, 『광세』의 번역비평과 번역인문학』, 『프랑스문화연구』, 한국프랑스문화학회, 2018.
- 박민규, 『해방기의 해방 전 시사 인식과 담론화 양상 연구』, 『우리문학연구』, 우리문학회, 2014.
- 박연희, 『1950년대 후반 시인들의 문학적 자기-서사』, 『현대문학의 연구』, 한국문학연구학회, 2018.
- 박인성, 『인간의 인식에서 신으로의 이행 : 파스칼의 『광세』를 중심으로』, 『범한철학』, 범한철학회, 2008.
- 서중석, 『이승만과 3.15부정선거』, 『역사비평』, 역사비평사, 2011.
- 신중호, 『청마문학의 종교성 연구』, 『한국언어문학』, 한국언어문학회, 2002.
- 오문석, 『1930년대 후반 시의 '새로움'에 대한 연구』, 『상허학보』, 상허학회, 1998.
- _____, 『유치환의 바로크 여행』,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019.
- 오양호, 『청마시초』의 사상적 배경 고찰』, 『인문학연구』, 인천대 인문학연구소, 2019.
- 오창은, 『염상섭과 4.19혁명』, 『국어국문학』, 국어국문학회, 2015.
- 윤은경, 『유치환 초기 시의 생명애의 지평과 윤리』, 『비평문학』, 한국비평문학회, 2014.
- _____, 『유치환의 시에 나타난 디아스포라적 의식과 혼종성 - 만주 이주를 전후한 시편을 중심으로』, 『비평문학』, 한국비평문학회, 2014.
- 이인영, 『만주와 고향』, 『한국근대문학연구』, 한국근대문학회, 2012.
- 이 환, 『세 질서 - 몽테뉴와 파스칼의 경우』, 『프랑스고전문학연구』, 프랑스고전문학회, 2006.
- 정종현, 『근대문학의 나타난 '민주' 표상』, 『한국문학연구』,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05, 255쪽.
- 최현식, 『만주의 서정, 해방의 감각 - 유치환의 '만주시편' 선택과 배치의 문화정치학』, 『민족문학사연구』, 민족문학사연구소, 2015.
- 최호빈, 『1930년대 후반 동인문학 장의 형성과 세대론의 전개』, 『한국근대문학연구』, 한국근대문학회, 2018.
- 황병주, 『냉전체제하 휴머니즘의 유입과 확산』, 『동북아역사논총』, 동북아역사재단, 2016.

3. 단행본

- 김광희, 『뜨거운 노래는 땅에 묻고』, 지문사, 1985.
- 김진희, 『생명파 시의 모더니티』, 새미, 2003.
- 남승우 엮음, 『청마 유치환 전집』 2, 국학자료원, 2006.

문덕수, 『청마 유치환 평전』, 시문학사, 2004.

박태일, 『유치환과 이원수의 부왜문학』, 소명출판, 2015.

유치환, 『생명의 서』, 영웅출판사, 1955.

_____, 『구름에 그린다』, 신흥출판사, 1959.

청마문학회, 『다시 읽는 유치환』, 시문학사, 2008.

루이 알튀세르, 서관모 옮김, 『마르크스를 위하여』, 후마니타스, 2018.

Yoo Chihwan's Self-explication of the Poem and North Manchuria Representation in the 1950s

—*The God and the Foreknowledge Theoy in Draw in the Clouds (1959)*—

Park Yeon Hee*

This article examined the literary characteristic of Yoo Chihwan after the 1950s which his works had been intertwined with pure literature, participative literature and philosophy/theology. By doing so, it was possible to know how the idea of God played an important critical, narrative and theoretical functions. Intersecting time, space and ideology which were independent of historical facts, Yoo Chihwan reinterpreted foreknowledge, God and cosmos in the self-explication of the Poem. He thought the importance of history not as the record of experience but as something that would be Constantly revised. In that sense, Yoo Chihwan turned his own personal experience of North Manchuria to universal experience through cosmic existence and foreknowledge in the 1950s.

Key words : Book of Life(1947/1955), humanism, foreknowledge, God, cosmic imagination, *Saengmyungpa*, *Draw in the Clouds*, Yoo Chihwan, the end of the Liberal Party, resistance poems, North Manchuria representation

논문투고일 : 2020년 7월 22일 || 심사완료일 : 2020년 8월 16일 || 게재확정일 : 2020년 8월 23일

* Professional Researcher of Institute of Korean Literature Studies in Dongguk University.

